

충남리포트 제77호 2013. 4. 19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박춘섭·김종수·장효안·홍은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목 차

< 요약 >

1.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현황 및 정책
2. 충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 결과
3. 향후 과제

〈요 약〉

-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조직체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충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충남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103개) 및 마을기업(49개 업체)등 총 152개 업체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수집은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부실응답 등을 제외한 사회적기업(98개), 마을기업(47개)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조사항목은 ① 기업형태·업종·매출액등 기업일반에 관한 항목, ② 경영실적 및 민주적운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업운영에 관한 항목, ③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증제도에 관한 현황 및 수요항목, ④ 지역 사회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로의 영역확대 가능성을 고찰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항목으로 나뉨.
- 조사결과, 충남의 사회적기업은 ① 농업생산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② 고용 및 재무/판매실적 등에서 아직 소규모사업체 수준임. ③ 현재 사회적기업 중 60% 정도가 협동조합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고, 이중 80%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음. 그러나 ④ 사회적기업간의 연대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의 마을기업은 ① 거의 농업관련(약93%, 상품 및 서비스 기준분류) 기업임. 그러나 ② 임의조직형태가 45%정도에 이르고, 고용구조가 취약하여 기업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그러므로 마을기업을 정착화하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③ 마을기업 역시 마을기업 간 연대 및 거래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인큐베이팅 지원, ② 인건비 지원에 집중된 재정지원제도 개선, ③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업간 사업중심 네트워크 구축 필요, ④ 지속적인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 구축, ⑤ 연대 및 교류 협력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됨.

-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재 인건비지원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재정·설비·전문경영·판로 및 마케팅 등 범주를 정해 지원금·투자·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은 높지 않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컨소시엄 등 사업 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호혜협력을 강화시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현재 사회적기업의 예비단계로 육성되고 있는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과 고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육성지원이 필요함. 특히 충남은 농촌마을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농촌형 사회적기업육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6차산업화, 희망마을만들기, 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현황 및 정책

1)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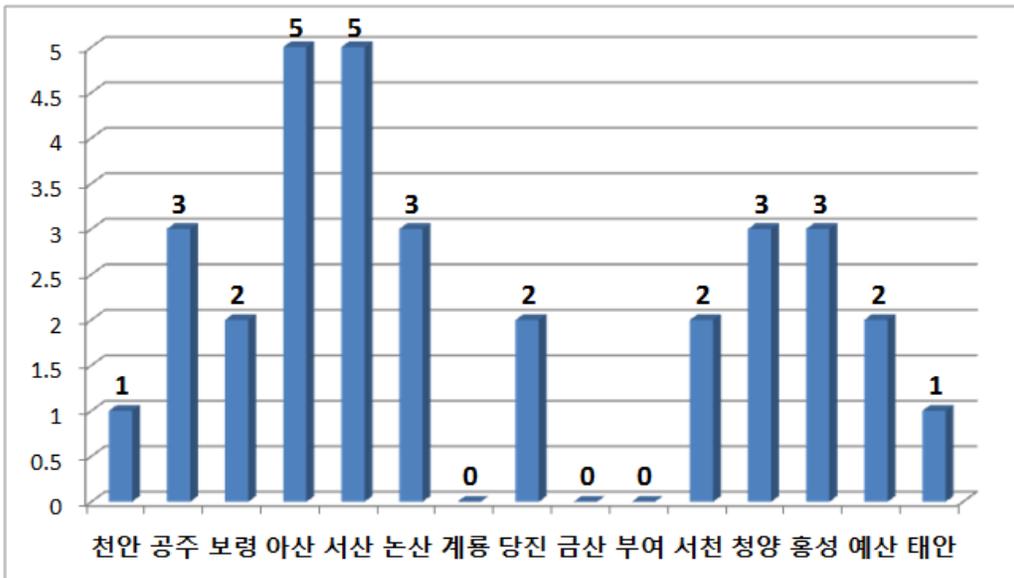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12년 12월 현재, 전국 인증사회적기업은 총 723곳으로, 서울·경기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충남은 21개 업체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됨. 충남도의 경우, (예비1)사회적기업의 총수는 107개로, 이중 인증사회적기업은 21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84개,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은 2개가 지정되었음. 다음과 같이 서비스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음.

유형별 현황				
서비스유형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합계
일자리제공형	69	14	1	84
사회서비스형	5	2	-	7
혼합형	6	2	-	8
지역연계형	-	-	1	1
지역사회공헌형	4	1	-	5
기타	-	2	-	2
합계	84	21	2	107

1)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한 기업을 지칭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정함.

(2) 마을기업 현황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²⁾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은 충남의 경우, 2010년 11개, 2011년 26개, 2012년 32개 등 총 69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었으나, 사업기간 종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등으로 2012년 현재 32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음.
- 시군별로는 아산시와 서산시 각각 5개,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홍성군 각각 3개씩 지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2)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정책

(1)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12월 2차 계획 수립·발표하였음.
- 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음.
 - 계획은 사회적기업 또는 종사자 수 등 계량적인 지표 제시는 지양하고, 성공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데 주력을 목표로 하고,
 -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②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 설립 활성화와 사회적기업가 육성, ③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④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을 제시.
-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은 1차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지원 방식의 개선과 자원연계의 미흡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 ①사회적기업의 자생력강화, ②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③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④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충청남도는 2012년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순환과 공생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정하고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둠.

- 중점추진과제로 ①사회적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 ②사회적기업 및 인재 발굴 육성 지원, ③사회적기업 자립경영 및 판로지원 홍보, ④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 확산, ⑤사회적기업·기업가 인식제고 및 내부투명성 제고, ⑥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를 두고 있음.
-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충남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 개정, 충청남도 사회적경제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정책 담당부서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2) 마을기업 육성정책

-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사업임. 충청남도는 마을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
 - ①지역 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 발굴, ②시군에 마을기업 지원단 구성 등 지원조직 체계구축, ③사업비지원 및 교육 등 지원강화, ④마을기업 홍보강화
- 2012년 10월, 2012년 선정된 32개의 마을기업으로 구성된 충남마을기업협의회가 발족. 마을기업 협의회는 충남도 및 시군과의 민관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마을기업의 성공모델의 발굴 및 자립기반강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발족.
- 금후 협의회는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훈련, 공동마케팅, 공동판매장 설치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2. 충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충남지역의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실태³⁾를 파악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항목은 전술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음.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뉨.
- ① 기업일반에 관한 조사 - 기업형태, 업종, 소재지, 조직형태, 매출액, 사업 수익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함.
- ② 기업운영에 관한 조사 - 재정현황, 생산물 공급처, 원자재 수급처, 이해 당사자 및 의사결정기구 유무, 사업측면의 과제, 비전 및 발전목표 유무를 통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경영실적과 민주적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함.
- ③ 인증제도에 관한 현황 및 수요 - 신청목적, 인증시기, 인증시 장애요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추진이유 및 그 효과, 지원내용, 인증 후 만족도와 그 이유, 운영시 필요한 지원(행정 및 네트워크),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 운영시 애로사항지원체계의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함.
- ④ 사회적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유무, 지역주민의 참여형태, 지역자원의 활용형태, 지역성의 유무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로의 영역확대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여 실시함.

3)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현황, 운영 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정책 수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2012년 6월 현재) 시점에서 지정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는 충남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103개) 및 마을기업(49개 업체) 등 총 152개 업체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수집은 설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음. 조사결과 부실응답 등을 제외한 사회적기업(98개), 마을기업(47개)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함.

2) 사회적기업 조사결과⁴⁾

(1) 기업일반

- 생산분야, 특히 농업생산에 편중된 업종적 특징
 - 생산, 분배, 소비의 경제영역 중 생산영역에 치우쳐 있는 양상을 보임.
 - 더불어 충남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산물생산 및 제조 분야가 40.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아직 어려운 사회적기업 고용환경
 -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8개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1,12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규직이 589명, 계약직이 535명임. 전체기업 98개 중 50개 기업이 정규직만 고용하여, 고용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 인증 전·후 자체 고용인력은 정규직의 경우 67명 증가하고, 계약직은 139명이 증가, 지원 이후 자체 고용할 수 있는 역량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 성별로는 여성이 정규직, 계약직에서 모두 높게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 계약직에서의 고용비중이 훨씬 높게 나와 남녀 간 고용의 질에서의 차이가 발견됨.

4) 각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2012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체과제인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본 리포트에서는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소개함.

- 취약계층의 경우 전체 1,124명 중 538명으로 47.9%에 달했으며, 이중 고령자의 비중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해당함.
- 정규직 고용을 지향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방식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급여는 평균 109만원으로 2012년 최저임금인 957,220원을 겨우 상회하는 정도임.

(2) 기업운영

○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판매에 대한 지원 필요

- (예비)사회적기업의 재무현황은 부채가 없는 비중이 63.3%로 나타나 재정적 안정성이 확인되는 반면, 자본금, 민간대상 사업수입, 정부지원금 등이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나타나 규모면에서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체이자, 자본금의 상당부분이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순이익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6.9%에 달하며, 순이익도 5,000만원 미만이 40.8%에 육박해, 자본금 및 순이익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방식은 직접 판매하거나(4.9%) 일반 업체를 통해 유통(31.6%)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유통 마진 등을 고려, 공동의 유통망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스스로 인식하는 경쟁력과 애로사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는데, 판로확보, 마케팅능력, 영업활동, 재정적 기반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운영자금 부족, 마케팅 및 판로문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함.

○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사업체 운영에 있어 연간계획 및 재무관리를 관계자들과 모두 공유하는

비중이 70.4%로 나타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력수급은 주변 관계를 통해서 확장하는 추세이며,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는 모두 같은 시군의 사업체 및 주민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제도에 관한 수요

○ 사회적기업 제도에 대한 정책수요

-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한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사회적기업에 관한 교육 및 시장 경영분석이 사전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데 있어 영업활동이 노무비의 30%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음. 이 결과에 대해 사회적기업가의 잘못된 이해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음. 노무비 30%이상이라는 조건을 예를 들어 전체 노무비가 100만원인 경우 이 중 30만원은 영업이익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몇몇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노무비의 30%를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함⁵⁾.
- 인증 이후 일반인들의 관심과 공공기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이 증가하게 되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나, 행정적인 업무 및 경영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높게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있다고 응답.

○ 협동조합전환에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비율 80%

- 협동조합 전환과 관련해서는 20.4%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약 39.8%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협동조합 전환에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율이 80%에 달함.

5)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사회적기업팀과의 인터뷰

- 이러한 응답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비영리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과, 다른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영리 추구보다 사회적인 목적의 추구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4) 사회적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 사회적기업간 연대는 미흡

-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연대 수준은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됨. 연대의 주체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일반기업, 마을 청년 및 부녀회,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등이며 대부분의 내용은 물품 구매 등 경제적 협력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7.1점 (10점 만점)과 52%가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3) 마을기업 조사결과

(1) 기업일반

○ 기업으로서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부각됨

- 충남의 마을기업은 영농조합법인(40.4), 마을공동체(36.2)의 순으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고 법인격형태의 분류로 파악할 경우, 45%의 마을기업이 임의조직형태임.
- 또한 설립연한이 평균 2.3년으로 짧으며, 마을기업을 지정했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61.7%가 집중적으로 설립되었음.

○ 농업분야에 편중된 업종적 특징

- 충남의 마을기업 역시 농림수산업(68.1%)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스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93.0%로 대다수를 이루었음.

○ 취약한 고용구조

- 마을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는 238명, 기업당 평균 5명을 고용하고 있음. 전체 고용에서 정규직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낮음. 정규직의 경우, 성별의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58%, 42%), 계약직인 경우 여성고용이 남성고용의 두 배의 차이를 나타냄(34%, 66%)
- 또한 유급종사자가 없는 사업체도 11개 기업에 달해, 마을기업이 충남형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유급고용불충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마을기업의 고용자의 73.9%(남성 60명 여성 116명 총 176명)가 취약계층임. 고용된 취약계층 중 고령자의 비율이 60.8%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8%로 가장 적었음.
- 마을기업의 평균급여는 94.4만원으로 최저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가 없는 기업도 11곳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하고 있음.

(2) 기업운영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필요

- 마을기업의 평균자본은 73백만 원 정도이지만, 자본이 없거나, 1,000만원 미만이 경우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수입의 경우, 공공부분을 통한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85.1%), 민간시장을 통해 평균 48백만원의 사업수입을 올리고 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을 통한 순이익이 없다고 응답한 수가 32곳으로, 응답자의 72.7%에 해당함.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 마을기업은 총회(62.5%), 이사회(81.3%), 운영위원회 등(100%)의 비율로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각 회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결합형태를 보면, 주주 및 대표, 관리자 등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가 전체의 과반이 넘는 63.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됨.

- 충남 남북간 마을기업의 상이한 판매망 형태
 - 마을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는 같은 시군(47.9%)의 주민(68.8%), 일반 업체(20.8%)임. 이것을 충남 남북간 분석결과 북부권의 경우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같은 지역에 판매되는 것에 비해, 남부권의 경우 같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음.

(3) 제도에 관한 수요

-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관심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계획을 가진 마을기업은 80%이상임. 2013년중 지원할 예정인 업체가 59%(23개 업체)로,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이 요구됨.

(4) 사회적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 물품구매로 편중된 연계관계
 - 지역사회와 마을기업과의 연계는 마을청년 및 부녀회(75.0%), 일반기업(37.5%),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35.4%) 순이었고, 연계내용은 물품구매(75.8%)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대 및 거래는 미약함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대는 사회적가치 등과 같은 공동인식 및 공동마케팅/홍보, 공동물류 등 실제기업의 판매와 직결되는 부분의 관심은 높았음. 그러나 공동마케팅/홍보, 공동물류 등에서는 낮은 수준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마을기업은 평균 2.59개의 사회적경제조직과 거래를 하고 있음. 마을기업지정 후 거래 사회적경제조직수의 증가가 없거나 1,2개의 증가에 그친 기업이 과반(60.5%)을 넘고 있어 마을기업의 지정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거래를 추동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과제

(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충남도의 역할확 인

- (예비)사회적기업의 약 75%가 2008년도 이후 설립되었으며, 특히 2010년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이 인증되기 시작하던 2008년과 충남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이 시작된 2010년 등 지자체 정책지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인큐베이팅 지원 강화

- 최근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는 청년형 사업이나, 주민기업과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를 거친 사회적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템과 준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기 앞서 인큐베이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천의 주민기업 지정 및 지원은 좋은 예일 것임.

-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이 요구됨. 마을 기업을 신청하는 많은 업체의 사업계획서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보다 지원금 사용내역의 적시에 그치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재정지원제도의 개선필요

- 현재 인건비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지원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 지원을 줄여가면서 재정·설비·전문경영·판로 및 마케팅 등 범주를 정해 지원금·투자·대출 등의 층위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재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필요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신탁 및 투자재단 등 투자와 대출기관의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금 구축이 요구됨. 더불어 재정·설비·전문경영·판로 및 마케팅에 있어서는 기존 프로보노 등의 지원과 함께 지역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기업의 CSR일환으로 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유통 및 판로 측면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들(꾸러미, 품앗이 생협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가 양성의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4) 사업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

○ 개별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은 높지 않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연대와 호혜협력이 절실함. 이를 위해서 사업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컨소시엄, 공동사업 제안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얻게 됨.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기업간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의식을 체득함으로써 연대와 호혜협력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① 『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전개』: 기존 사회서비스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바우처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식품구입 등에도 지원이 되는 것.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역시 좋은 예임.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범위를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상품권 사용 확대에 대한 홍보(개별기업 홈페이지 및 관공서 홈페이지 게재 등)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상품 구매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② 『공공유통사업의 전개』: 사회적기업의 판로망의 확보의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공공시장참여에 대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제 사회적기업이 공공유통으로 활용할 아이템을 기획할 수 있게 하는 기획사업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담당 공무원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또는 반대로 사회적기업에게 공공시장에 대한 홍보나 설명회, 공청회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역으로 당사자 조직들은 공공시장의 필요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연대·노력을 통해 본인들 사업들을 표준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이러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연결해 줄 필요가 있음.

(5) 마을기업의 전략적 육성책의 필요성 대두

- 금번 설문조사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현황과악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이 중 마을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설문문항을 설계함.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마을기업의 진흥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이 목적인 예비단계로만 파악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
-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보다 마을과 고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마을기업은 각 마을과 고장의 특색과 문제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짐. 특히 충남의 경우 주요한 지역적 특성이 농촌이며, 다수의 마을기업이 농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농촌형 마을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우선, 농촌지역의 마을기업은 비즈니스인 동시에 취약계층의 소득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마을기업의 고용 및 급여기준을 단순히 정규직여부 또는, 최소인건비지급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어려움이 있음. 현재 농촌지역의 마을기업의 급여는 최저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낮은 수준. 마을기업의 고용은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소득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고용역시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불안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마을기업을 통해 마을의 소득원의 증가, 농촌의 활력증대 및 자생력증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됨.
- 그리고 농촌지역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루트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로의 발전을 염두해 두고 지원을 해야 할 것임. 농촌의 마을기업은 6차 산업화, 희망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마을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중견마을기업)으로 발전하는 것도 좋은 예일 것임. 이러한 적극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부처간 및 지원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함.

-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개편, 네트워크구축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6) 사회적경제 마인드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 사회적기업가정신 함양과 종사자교육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므로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계별 교육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은 주요한 사회적기업진흥책으로 판단됨.
- 초등교육부터 협동의 경제를 알릴 수 있는 교과과정 등을 개발해 사회적경제가 협동과 호혜로 작동하는 다른 경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장기적 교육이 필요.
- 그러나 현재 일반 교과과정을 통해서는 협력의 경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 성인이 된 후 협동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임. 결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이 요구됨. 이 때 가장 큰 변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임. 특히 방법 측면에서 주입식이 아닌 체화를 위한 Action-learning, 민중교육 등의 방법 등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실질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

(7) 연대 및 교류협력 호혜프로그램 개발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 및 교류협력의 미발달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계)이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대 및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교류협력을 위한 교류,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지양되어야 할 것. 이는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낼 개연성이 높음. 그러므로 『사업중심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
- 특히, 기업의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지난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현재 주식회사구조로 된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1주1표제원리에서 1인1표제로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하여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음.

송 두 범, dbsong@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Tel. 041-840-1200

박 준 섭, jacobp73@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Tel. 041-840-1217

(기타 연구진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

* 본 리포트는 2012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체과제인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연구」를 발췌, 요약·정리한 내용임.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준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귀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욱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중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김중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욱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호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